

IMF Survey

아시아 경제 전망

아시아: 전망은 밝으나, 취약한 글로벌 경제로 인한 위험 증가

IMF Survey online
2012년 4월 21일



사람들로 붐비는 중국 베이징의 야시장. 중국을 포함하는 아시아의 신흥 국가들은 계속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이 될 것이다.
(photo: John Hicks/Corbis)

- 아시아의 경제 활동은 금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인플레이션이 없는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융통성 있는 정책 필요
- 중국: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주요 과제

IMF 아시아 태평양국장은 아시아의 경제 활동이 작년의 침체에서 벗어나서 2012년에 증가했으나, 취약한 글로벌 경제로 인해 이 지역의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누프 싱(Anoop Singh) 국장은 IMF-세계은행 스프링 미팅에서 실시한 강연에서 아시아의 경제가 금년에 2011년과 거의 같은 6 퍼센트 정도 성장할 것이고, 그 후에 점차로 회복되어 2013년에는 약 6½퍼센트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취약한 상태가 이 지역에 계속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문제에는 특히 유로 지역의 부채 위기,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인상될 위험, 그리고 자본 흐름의 변동성이 포함된다.

“아시아의 강력한 경제 및 정책 펀더멘털(기초 요건)이 유로 지역에서 발생한 파급효과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나, 선진국에 대한 수출의 급격한 감소와 자본 유출의 증가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국내 수요에 대한 연쇄 효과를 통해서 아시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라고 아누프 싱 국장은 설명했다.

아시아의 경제대국들이 경제 회복을 주도

최근 수 개월 간, 신흥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 인도의 주도 하에 가장 급성장한 지역이었다.

중국은 2012년에 약 8¼퍼센트의 온건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 이유는 중국이 균형 성장을 추진하고 관련 당국들이 경제를 연착륙시키려고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는 금년 하반기와 2013년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2013년에는 8¾퍼센트의 성장을 달성할 것이다.

또한 아시아의 인플레이션은 2012년에 약간 감소하여 약 3½퍼센트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것은 부분적으로 식량과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명시적, 묵시적인 일부 목표 범위에 근접해 있거나 상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싱 국장은 분석했다. “따라서 경기 과열의 징후가 있는지 주의해서 관찰해야 합니다.”

유연한 정책 대응이 필요

싱 국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외부 환경으로 인한 성장 위험과 비교하여 인플레이션이 없는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적절한 지원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책입안자들은 경기 과열 징후가 명백하게 나타나는 경우, 정책 기조를 변경하고 긴축 사이클을 조정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라고 싱 국장은 설명하고, 위험의 균형은 국가마다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한 싱 국장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재정 건전화로 조정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조정되는 대규모 재정 적자와 높은 부채 구조를 안고 있는 국가들은 더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속 가능한 균형 조정 추진

싱 국장은 이 지역의 대외 흑자가 최근에 감소한 것을 환영했으나, 이 지역 전체가 국내 성장 요소를 강화 및 유지하기 위해서 보다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을 “외부 충격에 의한 위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보험”이라고 표현했다.

싱 국장은 중국에 대해 “국내총생산의 일부분인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아직 공식적인 통계에 나타나지 않았으나,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균형 조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싱 국장은 가계 소득과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중국의 12 차 5 개년 계획에 두드러지게 반영되어 있고 정부가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에 고무되었다.